

학인염불시연대회 규모 확대

7월17일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진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염불대중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학인염불시연대회가 오는 7월 17일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교육원은 염불시연대회에 학인스님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늦춘 17일로 확정하고, 행사장소도 조계사 마당으로 변경했다.

6월12일 현재 대회참가 신청을 마친 학인 스님은 3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부에는 15개 교육기관에서 110명이, 단체부에는 10개 교육기관에서 186명이 신청했다. 참가자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교육원은 예산장소를 확대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과 2층 회의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등에서

오전9시부터 나눠 진행되며, 단체부는 개인부 예심에 이어 전통문화에 슬공연장에서 치러진다.

오후2시부터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시작되는 본심에는 예심을 거쳐 선발된 사미 5명, 사미니 5명 등 개인부 10명과 사미 2팀, 사미니 2팀 등 단체부 4팀이 참가한다. 개인부는 12분간 지정염불과 자유염불을 하며, 단체부는 팀별로 각 10분을 시연한다.

개인부 대상인 총무원장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 2명에는 각 150만원, 우수상 3인에게 각 100만원, 원력상 4명에 각 50만원이 수여되며, 단체부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수여된다.

허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세월호 참사와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의 극락왕생 기원과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청소년 교육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등 많은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다. 사진은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 250여 명이 참가한 대회 기념사진.

“불교정신 함양 통한 청소년교육 펼치자”

제35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생명 최우선’...공동선언문 채택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을 들었습니다. 양국 불교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항상 자비로 넘치고 풍요로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불교정신 함양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스님)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규슈 쿠루미시(久留米市) 젠도우지(善導寺)에서 개최한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참가자들

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동일본 지진 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이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 2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불교의 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세계평화기원법요식, 환영만찬, 난조인(南藏院) 참배 등 다채로운 교류사업으로 진행됐다. 10일 열린 세계평화기원법요식은 일본 측의 법회시, 표백문(表白文), 축원, 대회사, 인사말,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세계평화기원법요식 대회를 통해 “한일 양

국은 정치와 문화, 사회 등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현안을 마주하고 있지만 불교도만큼은 상호 존중과 우호를 바탕으로 35차에 걸쳐 양국 간의 원활한 교류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친소를 넘어 양국 간 소통의 역할을 다하면서 국민적 화합을 이끄는 소중한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세월호 사건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준 일한불교교류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양국 종교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스님은 대회사에서 “대회가 35차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양국 불교도의 우호친선의 덕분이며, ‘지속은 힘이다’라는 말처럼 일한불교의 깊은 관계가 구

축돼 왔기 때문”이라며 “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불교의 화합공생정신을 바탕으로 우호를 더욱 더 도모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서원했다.

법요식에 이어 ‘불교의 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가 기초발제를 한데 이어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자살을 증가하고 불교인성교육의 중요성’, 히로사와 타카유키(廣澤隆之) 대정대학 부학장이 ‘교육에 있어서의 불교도의 사명’을 각각 발제한 뒤 참가 대중들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허남결 동국대 문화윤리학과 교수는 “불교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청소년의 자살예방과 같은 생명윤리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할 때가 됐다”면서 “불생생계의 취지를 자살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지를 발휘할 때, 비로소 청소년들

의 자살을 막을 교육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히로사와 타카유키(廣澤隆之) 대정대 불교학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의의를 우리 스스로 자문함으로써 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게 교육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근본으로부터 바라보는 시선을 짚은 세대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관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한국불교 지도자 100여 명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스님과 이사장 니시요카 료요코(西郷良光)스님 등 일본불교 지도자 150여 명 등 총 250여 명이 참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동국대 중앙도서관 기금 1억 보시

총액 30억원 이상 후원 '수불 컨퍼런스' 선정



김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오른쪽)과 동국대 김희옥 총장.

김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이 동국대 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 이번 기부로 스님이 학교에 전달한 기부금은 30억원을 넘어섰다.

수불스님은 “도서관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연구자들의 지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한 중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해 사회를 이끄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

고 화답했다.

이번 행사에서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계환스님)은 수불스님의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중앙도서관 3층 IC ZONE 컨퍼런스를 ‘수불 컨퍼런스’ 명명해 선정했으며 평생 도서 대출증도 전달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동국대 경주캠퍼스 발전 염원

고운사 호성스님 1000만원 전달



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해왔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불교세계화장학기금, 선센터건립기금 및 발전기금 등을 기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호성스님(사치)은 “이번 발전기금 전달로 많은 사부대중이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발전

“한 부모 가정 청소년에 희망을”

중앙승가대 총학생회 김포시청에 장학금

중앙승가대 제33대 총학생회(회장 덕성스님)가 지난 9일 김포시청에서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210만원을 전달했다.

회장 덕성스님은 “최근 세월호 사고를 접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

른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33대 총학생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출범한 제33대 총학생회는 그동안 부산 아시아드 주경



중앙승가대 제33대 총학생회는 지난 9일 김포시청에서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210만원을 전달했다.

기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대회’와 북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등에 참여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들을 추모하

기 위해 진도와 안산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천도 의식을 봉행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문자서비스 수신자 모집

불교신문(www.ibulgyo.com)에 보도되는 주요 기사를 휴대 폰 문자서비스로 제공받고 싶은 분은 이메일로 이름(또는 법명)과 소임, 전화번호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할 곳 : munja@ibulgyo.com 불교신문사

교육원 인증 프로그램안내

헤거스님의 영가집 특강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종단스님들을 위한 조계종 교육인증과정으로 영가집 특강을 개설하였습니다.

영가집은 당나라 영가 현각선사가 수행인의 입지와 수선을 찬술한 문집으로,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바른 수행법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불교의 개론서이며 한문경전의 문리를 돕는 탁월한 논서입니다.

헤거스님의 명쾌하고 깊이 있는 해설로 풀어나갈 영가집 특강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대 상 _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
- 장 소 _ 금강선원 (강남구 개포2동 186-3 삼우빌딩)
- 일 정 _ 8월 21일(목) ~ 9월 25일(목) 총 6주, 18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9시
- 수강료 _ 15만원

금강선원
☎ 02.445.8484

제12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가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정리하기 위하여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2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 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 응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 ① 출가 부문 ② 재가 부문
- 상금 : 총액 5,000만원 이내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 ① 출가 부문(개인 또는 단체)
 - 3인(인) 이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 ② 재가 부문(개인 또는 단체)
 - 3인(인) 이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
- 응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 ① 스토리텔링 : 대본 내용 등 제출 [A4용지 최소 10매 이상 ~ 최대 30매 이내]
- ② 다큐멘터리, 드라마, DOCUMENTARY(다큐+드라마) - DVD 또는 데모영상(5분~20분 이내)/대본 등 제출
- ③ 영화, 애니메이션, INFOTAINMENT(정보+오락) - DVD 또는 데모영상(5분~20분 이내)/대본 등 제출
- ④ 오디오(작곡 등) : 3곡 이상(1곡 당 2분 이상 5분 내외)
- ⑤ 미술·일러스트레이션
- ⑥ 상기 관련 분야
- 상금 : 총액 4,000만원 이내
- * 영상자료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함.
- * 시상 대상에 대하여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2014년 9월 15일(월) ~ 9월 30일(화)

제출서류 : 제12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자시행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대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무관심 유함)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함.